

보도자료

2011년 9월 29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 성석함 팀장(☎750-1780)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 고경술 사무관(☎750-1785) kyoungsul@kcc.go.kr

방통위, 「소셜네트워크 미래 포럼」 개최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간 상생 협력방안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 포털사, 소셜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 미래 포럼(이하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서비스와 결합되고, 글로벌 선두주자들은 SNS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화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게임, 광고, 네트워킹 툴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단순인맥 관리나 홍보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방통위는 포럼을 통해 기업, 학계, 유관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SNS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차세대 SNS에 요구되는 핵심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방안 모색을 통한 국가 사회 전반의 소통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연구, 신기술·표준화 연구, 법·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3개 분과(미래전략분과, 비즈니스분과, 인력양성·기술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윤영민 교수가 포럼 의장을,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사무국을 맡게 된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세상의 소통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사회·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포럼이 SNS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이슈와 쟁점들을 발굴하고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생산하는 토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포럼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며, 포럼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설하여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